



Original Articl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Empowerment and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of Breastfeeding Mothers

Kwon, In Soo¹⁾ · Choi, So Young²⁾ · Kang, Young Sil¹⁾ · Yang, Young Ok³⁾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 Gimhae Campus, Samjeong-dong, Gyeongnam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의 관계

권인수¹⁾ · 최소영²⁾ · 강영실¹⁾ · 양영옥³⁾

1)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건강과학 연구원

2)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건강과학 연구원

3)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empowerment and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of breastfeeding mothers. **Method:** Breastfeeding empowerment was measured on a scale of 5 developed by Kim & Park(2004), while self-confidence was measured on a scale of 4 by Lederman et al.(1981). Data was collected during a Breastfeeding Infant Contest held in September 2006 and 2007 in Changwon-si, Gyeongsangnam-do. The subjects were 278 breastfeeding mothers.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with the SPSS win 12.0 version. **Result:** Breastfeeding empowerment scored 4.21 on average (5.0 full score). The score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only in breast milk quantity and

breastfeeding knowledge. On the otherhand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only in breastfeeding frequency and knowledge.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reastfeeding skill($\gamma=0.50$), with breastfeeding will($\gamma=0.45$), with adherence to exclusive breastfeeding($\gamma=0.35$) and with group empowerment($\gamma=0.39$). **Conclus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empowerment and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implies that breastfeeding empowerment may be utilized to promote self-confidence in the mother's role.

Key words : Breastfeeding, Role, Mother

투고일: 2007. 12. 18 1차심사완료일: 2008. 1. 25 2차심사완료일: 2008. 2. 25 최종심사완료일: 2008. 3. 4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So Young(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2 Chilam-dong, Chinju 660-751, Korea

Tel: 82-55-751-8881 C.P.: 82-10-4840-7582 E-mail: csy4214@hanmail.net

서 론

모유는 초유에서 성숙유에 이르기까지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 영아의 요구에 따른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적절하고 면역물질이 풍부하여 위장관 및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며, 산모의 자궁수축을 돕고 자궁압이나 유방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발생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zem, Feiesem, & Boettcher, 2003). 그리고 모유수유를 통해 어머니와 아기의 접촉이 늘고 모아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머니에게 모성애를 아기에게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발달시키며 모아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다(Lee & Kwon, 2006). 이러한 모유수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모유수유율은 80년대는 48.1%, 90년대는 14.1%, 2000년대는 10.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16.5%로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3). 반면 1970년대 초까지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던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 이후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유수유 권장 운동을 통한 효과로 일본 45%, 미국 52%, 유럽 75%의 모유수유율을 보고하고 있어(UNICEF, 2005), 국내의 모유수유율은 국외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유수유를 위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여 모유수유 실천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1995년부터 엄마 젖먹이기 운동의 일환인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서 나타나는 유방 및 유두문제, 유즙부족이나 부족에 대한 두려움, 산모의 수유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과 같은 산모요인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 모아 분리 운영체계,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핵가족화, 취업여성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있었다(Lee, Jeong, Ahn, Moon, & Park, 2003; Moon et al., 1998). 이 중에서 특히 모유수유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유수유를 하는데 있어 경험하는 문제들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산모의 의지는 모유수유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1997). 이에 일부 연구자는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산모의 의지를 강화하여 모유수유시 나타나는 유방 및 유두문제를 해결하고 모유량 부족이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개념을 도입한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Kang, 2006; Kim, 2006).

모유수유 임파워먼트(breastfeeding empowerment)는 산모가 스스로 완전한 모유수유를 선택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와 기술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증가시켜 완전 모유수유를 실천하

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Kim, 2006). 따라서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상태는 성공적인 모유수유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머니 역할은 직관적인 여성의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 Kang, Park, Hwang, & Moon, 2003). 또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모성정체감이나 산후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모아건강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Yang & Kim, 2003). 따라서 어머니가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실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어머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유수유는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landro, 2000; Choi, 2005; Lee & Kwon, 2006). 그러나, 단순히 모유수유 여부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관계가 아니라 산모가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를 증가시켜 모유수유 기술을 강화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완전 모유수유를 실천하려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정도과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 지역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를 알아보고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모유수유 실천과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용어의 정의

1)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는 산모가 스스로 모유수유의 주체가 되어 완전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유수유 기술, 모유수유 의지, 전적인 모유수유 고수, 집단 임파워먼트, 사회정책 임파워먼트(Kim & Park, 2004)로, 본 연구에서의 Kim과 Park(2004)이 개발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측정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 효능감(Lederman, Weingarten, & Lederman, 1981)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Lederman 등(1981)이 개발한 산육기 자가평가 도구 중 모성발달과업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5-7개월 영아를 모유로 양육하고 있는 모유수유 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자신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2006년과 2007년 경상남도 간호사회가 주최하는 제 5회와 제 6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5, 6, 7개월 영아의 어머니 2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대회 참가 대상자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추천에 의한 건강한 영아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건강한 어머니이다.

3. 연구 도구

1)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Kim과 Park (2004)에 의해 개발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척도로, 모유수유 기술(5문항), 모유수유 의지(4문항), 전적인 모유수유 고수(3문항), 집단 임파워먼트(3문항)와 사회정책 임파워먼트(4문항) 총 5개 하위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는 Cronbach's α 가 .87(Kim & Park, 200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은 Lederman, Weigarten과 Lederman (1981)이 개발한 8개 척도 총 87문항의 모성 적응 측정을 위한 산육기 자가평가 질문지(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중 제 5 척도인 모성 발달과업 대처능력에 대한 자신감 (Mother's Confidence in Her ability to Cope with the Tasks of Motherhood) 척도를 Lee(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역할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모되기, 영아 행동을 해석하기, 영아 요구를 충족시키기 능력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 의심스러워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유형의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많이 그렇다' 3점, '매우 많이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는 생후 3일 Cronbach's α 는 .80, 6주에 .74였고, 번안하여 산육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Lee(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당일인 2006년 9월 7일과 2007년 9월 11일에 이루어졌다. 대회에 접수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응답내용이 모유수유아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연구보조원은 G 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과 학부 3학년 학생으로 자료 수집 전에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남지역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모유수유모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아기의 월령은 5, 6, 7개월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아기의 병력은 없는 경우가 89.2%로 대부분이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기의 건강상태는 좋음이 93.9%였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59.4%로 과반수였다. 분만형태는 자연 분만이 73.4%였고, 모유수유 횟수는 1일 6회 이상 8회 미만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일 10회 이상 22.3%였다. 추후 출산계획이 있는 대상자는 64.4%였으며, 모유량은 충분한 경우가 89.2%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6.1%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지식은 매우 충분하다 14.0%, 충분하다 66.5%로 나타났고, 모유수유 결정자는 86.7%가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는 총점이 5점 만점에 4.21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전적인 모유수유 고수가 4.58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회정책 임파워먼트였으며, 모유수유 의지가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4점 만점에 3.31점이었다 <Table 2>.

3. 일반적 특성별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별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는 모유량(F=3.14, p=0.05)과 모유수유 지식(F=8.58,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기의 월령, 아기의 병력, 아기의 건강상태, 출산형태, 출생순위, 모유수유횟수, 출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feeding mothers (N=278)

Characteristics	n	%
Baby age	5months	93 33.5
	6months	94 33.8
	7months	91 32.7
Disease history of baby	Yes	27 9.7
	No	248 89.2
	No response	3 1.1
Health status of baby	Good	261 93.9
	Moderate	13 4.7
	No response	4 1.4
Birth order	First	165 59.4
	Second	97 34.9
	Third or over	14 5.0
	No response	2 0.7
Type of delivery	Vaginal delivery	204 73.4
	C-section delivery	72 25.9
	No response	2 0.7
Frequency of breast feeding a day	Less than 6 times	38 13.7
	6-7times	113 40.6
	8-9times	60 21.6
	More than 10 times	62 22.3
	No response	5 1.8
Future delivery plan	Yes	179 64.4
	No	96 34.5
	No response	3 1.1
Breast milk quantity	Enough	248 89.2
	Insufficient	12 4.3
	Don't know	17 6.1
Knowledge of breastfeeding	No response	1 0.4
	Very enough	39 14.0
	Enough	185 66.5
Decision-maker of breastfeeding	A little short	50 18.0
	No response	4 1.5
	myself	241 86.7
others	22 7.9	
	No response	15 5.4

<Table 2> The level of breastfeeding empowerment and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of breastfeeding mothers (N=278)

Variable	M(SD)	Min-Max
Breastfeeding empowerment	4.21(.39)	2.95-5.0
Breastfeeding skill	4.29(.55)	1.40-5.0
Breastfeeding will	3.64(.69)	1.75-5.0
Adherence to exclusive breastfeeding	4.58(.49)	1.67-5.0
Group empowerment	4.11(.63)	1.0 -5.0
Social policy empowerment	4.48(.51)	2.5 -5.0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3.31(.45)	2.0 -4.0

계획, 모유수유 결정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모유수유횟수(F=3.23, p=0.01), 모유수유 지식(F=8.19, p=0.00)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3> The level of breastfeeding empowerment and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feeding mothers (N=278)

Characteristics		Breastfeeding empowerment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M(SD)	F or t	p	M(SD)	F or t	p
Baby age	5months	4.18(.33)			3.26(.43)		
	6months	4.20(.44)	0.26	0.77	3.29(.46)	1.24	0.29
	7months	4.23(.39)			3.37(.45)		
Disease history of baby	Yes	4.26(.38)	-0.65	0.52	3.30(.44)	0.11	0.91
	No	4.20(.39)			3.32(.45)		
Health status of baby	Good	4.22(.39)	1.85	0.09	3.32(.45)	1.36	0.20
	Moderate	4.01(.38)			3.14(.48)		
Birth order	First	4.23(.41)	1.22	0.30	3.30(.47)	1.17	0.31
	Second	4.15(.37)			3.30(.43)		
	Third or over	4.25(.34)			3.51(.38)		
Type of delivery	Vaginal delivery	4.21(.39)	-0.13	0.90	3.30(.44)	-0.49	0.63
	C-section delivery	4.22(.40)			3.33(.48)		
	No response						
Frequency of breastfeeding a day	Less than 6times	4.09(.41)	2.18	0.07	3.30(.49)	3.23*	0.01
	6~ 7times	4.27(.37)			3.41(.44)		
	8~ 9times	4.21(.38)			3.22(.45)		
	More than 10 times	4.17(.43)			3.21(.43)		
Future delivery plan	Yes	4.24(.40)	1.61	0.11	3.31(.48)	-0.13	0.90
	No	4.15(.38)			3.32(.41)		
Breast milk quantity	Enough	4.23(.40)	3.14*	0.05	3.33(.44)	1.99	0.14
	Short	3.99(.34)			3.13(.42)		
	Don't know	4.07(.32)			3.17(.56)		
Knowledge of breastfeeding	Very enough	4.45(.35)	8.58**	0.00	3.54(.40)	8.19**	0.00
	Enough	4.19(.38)			3.32(.44)		
	A little short	4.06(.40)			3.09(.44)		
Decision-maker of breastfeeding	myself	4.22(.39)	0.53	0.60	3.32(.45)	0.86	0.40
	others	4.17(.44)			3.24(.41)		

* p<.05 ** p<.01

고, 아기의 월령, 아기의 병력, 아기의 건강상태, 출산형태, 출생순위, 출산계획, 모유량, 모유수유부담감과 모유수유 결정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부모역할 수행 자신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9, p=0.00). 모

유수유 임파워먼트의 하위 영역과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상관관계는 사회정책 임파워먼트를 제외하고, 모유수유 기술(r=0.50, p=0.00), 모유수유 의지(r=0.45, p=0.00), 전적인 모유수유 고수(r=0.35, p=0.00), 집단 임파워먼트(r=0.39, p=0.00)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

<Table 4> Correlation between breastfeeding empowerment and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of breastfeeding mothers (N=278)

Variables	Breastfeeding empowerment r(p)	Domain of breastfeeding empowerment				
		Breastfeeding skill r(p)	Breastfeeding will r(p)	Adherence to exclusive breastfeeding r(p)	Group empowerment r(p)	Social policy empowerment r(p)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0.49**(0.00)	0.50**(0.00)	0.45**(0.00)	0.35**(0.00)	0.39**(0.00)	0.09(0.17)

** p<.01

할 수행 자신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모유수유 실천율 증가와 어머니 역할 자신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는 5점 만점 중 4.2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유수유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와 비교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한 Kang(2006)의 연구에서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는 각각 평균 3.5점과 3.4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Kang(2006)의 연구 대상자들은 모유수유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라고 알려진 산후 1주 이내의 모유수유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본 연구결과 5, 6, 7개월별에 따른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산후 초기인 대상자들과는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후 모유수유 기간별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 변화를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모유수유 임파워먼트가 어느 시점에 악화되는지 파악하여 이들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를 재강화시켜 모유수유 실천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모유수유 고수가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모유수유 의지가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유수유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후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단순히 모유수유 지식과 방법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을 격려하여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신을 재구성하게 하는 역량강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Torre, 1986). 이를 위해서는 산모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어려움을 공유하고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임을 제공해 주고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모유수유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 교육자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임파워먼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3.31점으로 나타났다. Yang과 Kim(2003)의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 연구에서 2.78점,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 자신감을 조사한 Kang(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2.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5, 6, 7개월 된 모유수유모였으며, Choi(2005)의 연구와 Lee와 Kwon(2006)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모의 역할 수행 자신감이 조제유 수유모의 역할 수행 자신감보다 높다고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모유수유가 어머니 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Oh(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역할 자신감은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모유수유 여부만이 어머니 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본 연구결과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는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순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의 하부 영역과의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모유수유 기술, 모유수유 의지, 전적인 모유수유 고수, 집단 임파워먼트 등과 정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정책 임파워먼트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역할 자신감에 대한 비교연구는 없지만, 모유수유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모유수유 기간과 실천의 주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고 보고한 Blyth 등(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히 모유수유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스스로 완전한 모유수유를 선택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와 기술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증가시켜 완전 모유수유를 실천하려는 개념인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모유량과 모유수유 지식 등이었다. 본 연구결과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와 영아의 월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모유수유 기간과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본 연구 대상은 모유수유 5, 6, 7개월 모유수유모로 1-3개월에 해당하는 초기 모유수유아모의 임파워먼트 정도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의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타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에 차이는 보인 변수는 모유수유 횟수와 모유수유 지식 등 영아의 개월 수와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어, Lee와 Kwon(2006)의 연구에서 영아 개월 수,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Kang, Kim과 Son(2004)의 연구와는 상이하였다. 따라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이러한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유수

유 실천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수유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스스로 문제해결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개념을 적용하여 모유수유율의 증가의 결과를 낳는 동시에 어머니 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유수유 선발대회에 출전한 모유수유모만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관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조제유 수유모의 임파워먼트 정도와 모유수유모의 임파워먼트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남 모유수유 선발 대회에 참가한 5, 6, 7개월 모유수유모 278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의 관계를 조사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는 4.21점,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3.31점이었다.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모유량과 모유수유 지식이었고,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준 일반적 특성은 모유수유 횟수와 모유수유 지식이었다. 또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유수유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전략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월령별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를 파악하여 어느 시점에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재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조제유 분유 수유모와 모유수유모의 임파워먼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모유수유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를 증가시켜 모유수유 기술을 강화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완전 모유수유를 실천하려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를 파악하여 추후 모유수유를 성공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 정도와 비교해 보는 기초자료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모유수유 실천율 증가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이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재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개념을 간호학 연구에의 다양한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Blyth, R., Creedy, D. K., Dennis, C. L., Moyie, W., Pratt, J., & DeVries, S. M. (2002). Effect of maternal confidence on breastfeeding duration: an application of breastfeeding self-efficacy theory. *Birth*, 29(4), 278-284.
- Calandro, A. (2000). Nurses can facilitate a successful breastfeeding plan. *Adv Nur*, 2, 8-10.
- Chezem, J., Freiesen, C., & Boettcher, L. (2003). Breastfeeding knowledge, breastfeeding confidence, and infant feeding plans: effects on the actual feeding practices. *JOGNN*, 32(1), 4047.
- Choi, J. N. (2005). *Comparis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between mothers who select the breastfeeding in sanitary pack and mothers who select bottle feed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Jeong, G. H. (1997).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ang, I. S. (2005). *The relationship of stress, perception of infant,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the role performance of mothers in postpartum period*. Unpublished ma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 Kang, J. S. (2006). *The effects of breastfeeding empowerment program on breastfeeding mother's empowerment state, problems in breastfeeding and breastfeeding practice r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Kang, K. A., Kim, S. J., & Son, E. J. (2004). A study on the mothers perception, caring-confidence, and attitude towards own newborn infa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311-320.
- Kim, S. G. (2003). *2003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Y. M. (2006). *Effects of breastfeeding empowerment program on exclusive breastfee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Y. M., & Park, Y. S.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reastfeeding empowerment scale.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4), 360-367.
- Lederman, R. P., Weingarten, C. G., & Lederman, E. (1981). 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measures of maternal adaptation. *Birth Defects Orig Artic Ser*, 17(6), 201-231.
- Lee, S. O., Jeong, E. S., Ahn, S. H., Mun, G. N., & Park, N. H. (2003). A study of predictors of breastfeeding.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4), 168-375.
- Lee, S. Y., & Kwon, I.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12(3), 231-239.
- Lee, Y. E. (1992).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an*

- agreement on the means to achieve nursing goal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of primiparous mothers and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Y. H., Kang, Y. H., Park, H. S., Hwang, E. J., & Mun, M. Y. (2003). Relationship of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and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maternal rol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206-219.
- Moon, G. N., Jung, J. H., Lee, S. O., Cho, G. S., Kim, Y. J., Chung, E. S., Bai, J. Y. (1998). Breastfeed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breastfeeding problem during the week of postpartum. *Korean J Women Health Nurs*, 4(3), 416-428.
- Oh, H. E. (2001).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identity, role attain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J Korean Society Maternal Chil Health*, 5(2), 255-266.
- Torre, D. A. (1986). *Empowerment: Structured conceptualiz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Ithaca.
- UNICEF (2005). *A Nation Online: Breastfeeding*. Retrieved March 20, 2006, from <http://www.unicef.or.kr/bf/work/index.html>
- Yang, M. S., & Kim, I. S. (2003). A study on the self confidence and nursing needs maternal role performance in primiparas during postpartum period. *J Korean Soc Maternal Child Health*, 7(1), 19-32.